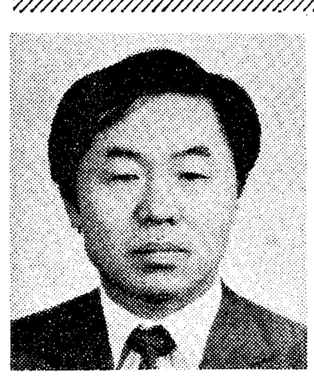
◇ 혁명… 그 시대적 요구와 필연성의 해부 <5>

급진적 사회변동과 역사의 전환



김 정 위
<한국외국어대 · 이란어과>

I. 머리말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인플레시대이다. 비단 돈의 가치만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여러 단어의 원뜻도 인플레현상을일으켜 점차 퇴색하고있다. 혁명이란 용어도 예외가 될수 없어 종종 남용되고있다. 물론 이 용어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기때문에 이 글에서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상식적인 풀이만을 그대로 적용했다. 즉 급격한 변혁, 왕조의 뒤바뀜, 비합법적 수단으로 국체(國體)나 정체를 변혁하는일 및 종래의 권위·방식을 단번에 뒤엎는 일 등이다.

이 관점에서 볼때 이란혁명은 그 전형적 의미에 아주 가깝다. 즉 팔레비왕조를 비합법적으로 붕괴시켰고 종래의 권위를 단번에 뒤엎어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여 나가는 대변혁을 일으켰고 새로운 지도층이 등장했다.

혁명의 성공에는 사회적 여건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혁명주체세력의 이념과 조직이 확립됨과 함께 강력한 선전공세를 통하여 일반서민의가슴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그들의 호응을 받는데서 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객관적 상황의 변천과정을 서술한 후에 혁명 주체세력의 결집과정을 논하고 끝으로 이란이슬람혁명의 세계사적 의의를 음미해보려 한다.

II. 혁명의 객관적 분위기 성숙

왕조가 바뀌는 혁명을 제외하면 근대세계사에 있어서의 혁명은 도시의 성장을 전제로 하는것 같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도 실상은 수도 파리가 산업의 촉진으로 급성장했고 1918년의 러시아공산혁명도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등의 성장에 힘입었다. 이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이슬람혁명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대도시의 급격한 성장에서 이루어졌다.

테헤란의 인구성장을 통계로 보면 1910년에 20만으로 다른 대도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25년에 팔레비왕조가 등장한 후 중앙집권과 이란의 근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테헤란의 인구중가속도는 기하급수적이 되었다. 즉 1939년에 54만, 1956년에 1백50만, 1970년에 3백20만, 혁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던 1978년에 약4백50만으로 추정된다. 물론 테헤란 교외의인구성장도 감안하면 수도권의 인구는 7~8백만정도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다른 대도시의 인구성장률보다 2배나 높은 것이였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급격한 인구성장에는 국가정책과도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도시의 성장은 세계각국간의 밀접한 관계 즉 교통망의 발달에도 힘입은 국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팔레비정권은 1970년대에 불어 온 석유파동의 덕택으로 오일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오자 이 돈을 집중적으로 공업화에 투자했다. 대부분의 투자가 노동력 공급이 손쉬운 대도시에서 이루어 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또 공업화의 촉진과 더불어 1950년대말에서 1960년대초반에 단행된 백색혁명의 일환으로 농지개혁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대지주는 전답을 잃었으나 그 보상금으로 도시에 진출했다.

한편소작인은 전답을 배분받아 자작농이되었으나 농업노동자는 농지도받지못하고 일자리만잃은셈이었다. 즉 대지주는일부농토를 소작인에게 또 일부는 농업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경영했기 때문이다. 지주의 땅을 배분받아 자작농이된 농부는 농업노동자를 고용할여력이 없었기때문에 농업노동자는 아무런 기술도없이 기회가좋은대도시로 나가 값싼노동력을산업발전에 제공하게 된것이다. 그 결과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이일어나게된 것이다.

물론 도시의 인구급성장현상이 혁명의 필수조건 가운데 하나이지만 결정적 조건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필수조건에는 빈부(貧富)의 차가 극심했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더구나 이란의 도시에는 이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다. 즉 북부에는 대체로 부유층이 살고 있는가 하면 남부에는 빈민층이 모여 있다. 중앙에는 대체로 관청, 상점, 시장등이 몰려 있어서 거주지만 보아도 빈부를 구별할수 있었고 또한 중산층의 비율이 전체에 비하여 너무나 약한 것이 그 특징이다.

1979년의 추정 총인구 약 3천 8 백만 가운데 10%미만이부유층, 20~30%가 중산층, 나머지 60%이상이 빈민층에 속했다. 물론 이러한 계층별 구분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란의 경우 자기의 집이 없는 사람, 또 무허가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및 끼니를 자기힘으로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중산층이 인구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었음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을 따름이다.

물론 팔레비정권도 빈민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제정책을 펴고 있었다. 1960년 중반 즉 토지개혁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완료되기 이전에는이란의 식량수급사정은 만족한 상태는 아니나마 자급자족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농업노동자가 대거 도시로 이주하고 농업투자가 감소함으로써 생산량이 떨어져 수입에 점차 의존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오일·붐의 덕으로 국민일인당소득은 상승하여 소비·붐을 일으켰다. 그 결과 우육과 곡물의 소비량은 1960년대보다 1970년대에 4내지 5배에 달하였고, 일인당소득의 증가율보다 훨씬웃돌았다.

결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곡물의 수입은 더욱 가중(加重)되어갔다. 특히 정부는 오일·붐의 혜택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빈민층의 생계를 위하여 시장곡물가격을 수입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여팔았다.

그 결과 1975년도까지 석유의 판매로 약 50억불의 수출초과를 달성했으나 그 이후부터 식량지원금의 증가로 1977년에는 약 16억불의 무역적자를 보게 되어 팔레비정권은 재정적 어려움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불만을 정치적으로 토로할 창구가 막혀 있었다. 팔레비왕조의 창시자 레자 한(1925~41재위)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그는 비록 입헌군주국의 군주로서 1908년의 제헌헌법을 존중하는 척 했으나 실제로는 독재자였다. 그의 측근에 군고위층이 둘러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이 전통은 그의 아들 모함메드 레자 팔레비(1941~79)때에도 여전했다.

20세의 젊은 나이로 모함메드 레자가 즉위했을때는 실질적으로 이란은 수상중심의 내각책임제로 돌아갔다. 그결과 1951년 국민전선당의 지도자 모함메드 모사데그가 수상으로 취임하여 영국-이란석유회사를 국왕과 상의도없이 국유화했고 국왕만이 누렸던 국회해산권을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에서 수상이 차지하자 왕권은 크게 도전받았다. 결국 국왕이 1953년 8월 수상을 파면하자 수상은 이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따라서국왕은일시해외망명의 길을떠났으나 곧 미국의지원을 받은군부가 모사데그수상을 뒤엎고그를뒷받침한 민족적 국민전선당과 친공적 투데(Tudeh. 대중의 뜻)당을 불법화시켜 왕권은 다시 확립되었다. 그러나 모함메드 레자국왕의 권위는 아직 절대적이지 못했고 중요한 정책은 수상이 입안하여 왕의 재가만 받고 시행했다.

모사데그수상의 도전에서 기사회생한 국왕은 왕조의 안전을 최대목표로 삼았다. 그에게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는 군대의 양성과 수상직을 정책입안에서 왕명(王命) 수행만 전담하는 기능직으로 격하는데서 그 해답을 찾았다. 따라서 군대의 동태와 고급공무원의 충성도를 감시하는 기구가 필요했다. 즉 국가안전기구(SAVAK)를 1957년에 창설하여 점차왕권의 신장을 도모했다.

1962년 토지개혁을 포함한 6개항목으로된 백색혁명의 선포와 함께 형식상의 서구식 의회민주제도는 사실상 종말을고했다. 국왕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장악했다. 이와함께 1963년에 의회내에서의 반대파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그의 전제군주적지위는 확립되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대세력은 호메이니옹을 중심으로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다. 백색혁명의 6개조항 가운데 토지개혁과 여성해방운동은 이슬람원리에 어긋난다하여 종교계는 정면으로 반대했고, 호메이니옹은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종교인들은 토지개혁으로 이슬람성원(聖院)의 재정적 바탕인 전답을 잃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성직자의 불만은 대단했다. 즉 토지개혁은 이슬람성원의 근거를 뒤흔들어 놓았고 여기에는 또 팔레비정권에서 추진해 온 이란 현대화의 장애요소인 성직자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그러나 종교계의 거물인 호메이니옹이 정부의 정책에 날카로운 비평을 가하자 부득이 1963년 6월에 그를 체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을 신호로 이란의 모든 도시에서는 3일간에 걸친 군중 시위가 있었다. 이것이 1978년의 폭발적 군중시위가 일어날 때까지 발생한 마지막 대중봉기였다.

그 이후 호메이니옹은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고 또 그의 반체제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확고하게 된 것이다.

국왕은 절대군주로서의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一国一党政治를 내걸어 라스타히즈(Rastakhiz, 부흥의 뜻)당을 창립하여 그의 지지세력을 총집결했다. 더구나 심복인 호베이다(1965~77 수상재임)를 이 당의 영수로 앉히고 동시에 수상직과 겸임하게 하였으므로 행정부와 정당은 국왕의 시녀로 떨어졌다. 1963년부터 국왕은 1979년1월에 망명의 길을 떠날때까지 그는 도전될 수 없는 전제군주였다. 그의 독재체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1978년초에만 해도 누구하나 그 생명이 1년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언하지 못했다. 팔레비체제는 안정과 질서라는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활화산이 타고 있었다.

모든 권력은 국왕을 정점으로 피라밋드식으로 구축되어있었기 때문에 군 조직과 행정부의 고위직은 국왕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즉인맥중심으로 인사문제가 해결되니 부정부패가 기성을 올리게 되고 벼슬길이 곧 축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대다수 국민의 굶주림위에도 그 불만의 창구는 막혀 있었으니 이상태가 오래 지탱될 수 없었다. 즉 혁명의 필수조건인 객관적 여건은 충족되고 있는 셈이었다.

III. 혁명세력의 성장

사회여건이 변혁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불씨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폭발한다. 즉 충분조건으로서의 혁명주체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세력은 곧 팔레비정권의 반대세력에서 찾을 수 있다. 반대세력의 계보도 상당히 다양하나 대체로 세속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의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1953년에 모사데그수상을 지지했던 국민전선당과 친공적인 투데당이었다. 둘은 모두 비종교적이고 세속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민전선당은 민족적인 이념을 지니고 있었으나 무슬림세계에서 인종주의적인 민족주의가 잘 자라기는 힘들었다. 더구나 이란과 같은 다민족국가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민족주의가 논리적 체계로 갖추어져 정립되어진 것이 없으니 이란에서 역시 비슷한 사정이었다. 따라서 국민전선당은 정권을 잃은후 불법화되니 그 세력은 이념과 조직이 확립되지 못하여 점차 약화되어갔다. 더구나 지도적 인물도 나타나지 않아서 구심점을 잃어 갔다.

투데당도 비슷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 당은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적이었고 겉모습은 민족주의적으로 분장했지만 무슬림의 풍토에는 맞지 않았다. 역시 1953년에 불법화되었어도 그 이념과 조직이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었으므로 지하에서 계속 존재했으며 활동했다.

결국 1978년에 혁명의 기운이 전국으로 뻗쳐 나갈때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었으나 혁명 후 다시 호메이니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 것이다.

종교적 정치세력으로는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이슬람원리주의세력이 가장 강력했다. 이 세력은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있으므로 이슬람성원을 핵으로 그 조직을 지탱할수 있었다. 이념 또한 이슬람원리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논거를 지니고 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는 달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합일되어 있다. 즉 교조 모하메드는 예언자이면서 정치가였다 이슬람공동체는 이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생활공동체이기때문에 일종의 운명공동체라 할 수 있다.

즉 종교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려조나 조선조에서 불교나 유교를 국교로 삼아 그에 따른 이념정치를 행한바 있으니 종교이념이 국가이념이 되어온 것이 한동안 세계적인 현상인것 같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온것은 서구의 문예부흥이후의 일인것 같다. 즉 중세암흑시대의 신본(神本) 주의에서 인본(人本) 주의로 전환함과 동시에 일어난 사조가 바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현상이니 과히 그 역사가 긴것은 아니다.

여하튼 이슬람은 정치와 종교의 합일을 원칙으로 하니 성직자가 정치를 하는 것은 중근동에서는 생소한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성직자는 권력과 밀착되어 있었고, 또 종종 직접 권직(權職)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들이 권력에서 물러나간 것은 서구사상이 물밀듯이 밀려 왔던 20세기초엽이었다. 서구식교육을 받은 개혁주의자들이 팔레비조의 창시자 레자한을 등에 업고 등장하여 서구의 문물을 흉내내면서 현대화를 노래할때 성직자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론에 밀려 이슬람성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교조 모함메드이후 활동해왔던 정치무대에서 서구모방주의자에 의해서 쫓겨난 셈이었다. 더구나 이란국민의 93%가 따르는 쉬아이슬람은 그 조직면에서는 가톨릭과 비슷할 정도록 잘 짜여져있다. 결국 국가조직도 종교조직을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세속적 반대세력보다는 종교적반대세력의 조직과 근거는 더욱 확고했던 것이다.

더구나 호메이니와 같은 천부적 혁명지도자를 종교세력은 지니고 있었다. 그는 종교지도자로서 1950년대부터 그 명성이 드높았다. 더구나 여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그의 성원을 방문했을때에 여왕도 여자니까 차도르(수녀옷같이 생긴 검은 외투)를 입고 그의 면전에서 무릎을 꿇어야 됨을 고집할 정도로 강직했다. 또 그의 추종자의 수는 상당했을 뿐만아니라 열렬했다.

호메이니가 국왕에대한 반대연설 때문에 수상에게 불려가 빰을 얻어 맞은 모욕을 당했을 때 이 소식을들은 그의 추종자는 그 수상을 암살 할 정도로 복수심에 불탔다. 간단히 말해서 세속적인 반대세력보다 종교적 반대세력이 이념적, 조직적 및 지도자의 구비조건의 측면에서 모두 월등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팔레비왕조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공동의 목적인 왕조타도에 모든 반대세력은 서로 협력했으나 일단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도 체제가 확고한 호메이니가 정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혁명의 성공에는 정부의선전에 역공세를 취할수있는 선전이 필요하다. 호메이니는 이관점에서도 유리한위치에 있었다 그는 망명중에도 이란사람들과 밀접한관계를 계속 유지할수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쉬아파무슬림의 성지인 이라크의남부도시 나자프에서 14년간의 망명생활을 보냈다. 이기간중에그는 이란의 성지순례자를 언제든지 만날수 있었다.

더구나 이 순례자들은 호메이니의 명성때문에 그의 카셋트 연설문을 가지고 귀국했으므로 선전적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또 성원조직을 통하여 그의 추종자들은 독실한 신자들에게 국왕의 문란한 생활상과 독실하지못한 신앙생활을 규탄할 기회는 얼마든지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국민전선당과 투데당은 공식적으로 국민을접할 기회조차 없었다.

IV. 이란 이슬람 혁명의 세계사적 의의

이 혁명은 그 주체세력의 이념, 조직및 선전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1년이상에걸친 대중봉기라는 형식을 거친 점에서도 전형적이다. 교통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대중은 정치활동에대한 관전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관여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정치는 종래에까지 소수정예분자의 손에서 주로 요리 되어 왔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대중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것이다. 이란혁명에서도 대중봉기는 혁명주체력의 조직·이념및 선전활동보다도 더결정적역할을 한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촉매작용이 아니라 객관적사회여건의 폭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중봉기의 막강한 힘앞에 왕관을 중심으로 뭉쳐진 군대, 관료, 비밀경찰등의 기구도 힘없이 쓰러진 것이다. 또 전형적 이란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소위 제3세계라는 후진국에서 일어나 성공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후진국이란 강대국에 의존적인 점도 그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팔레비정권의 경우 친미적이었던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여기서 군대, 행정기구 및 외세와 같은 힘으로도 대중적 지지기반을 잃은 정권은 오래 지탱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즉 자기 국민속에 뿌리박고 있는 정권만이 건전한 것임이 엿보인다.

친미적 팔레비정권에서 중립적 자주적 이슬람정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란은 국내에서의 사회적 격변은 말할 것도없고 국제적으로도 정치 및 경제분야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란혁명이 정점에 오른 1979년은 제2의 오일쇼크 때문에 석유가격의 폭등이 일어났다. 그와 함께 이란내의 미국군사기지가 철수됨으로써 대소련의 포위망구축에 구멍이 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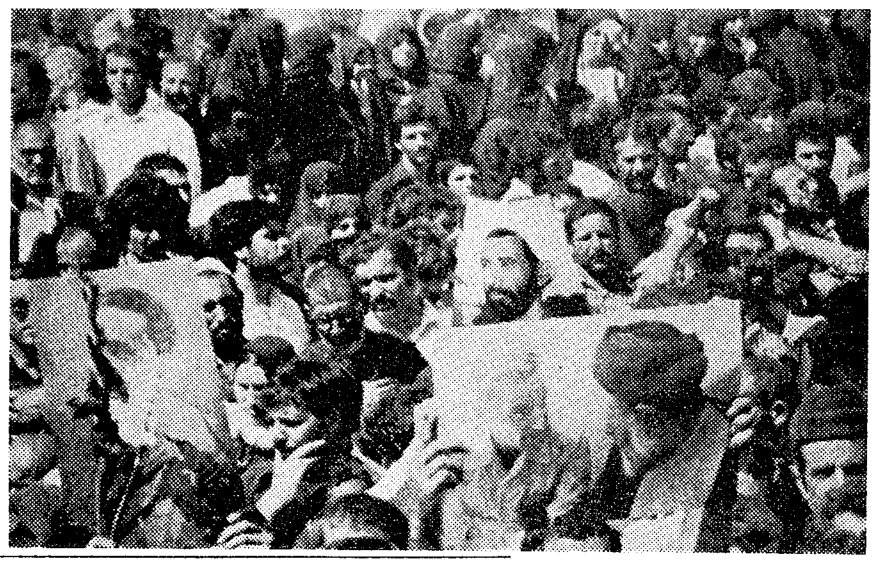
또 무슬림세계에서 왕정만이 진정한 이슬람체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반 무슬림에게 알리게 된 것이다.

호메이니의 이슬람공화국은 이슬람의 진정한 얼이 실행되는곳이며 모든 무슬림의 조국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배격함으로써 이슬람원리주의가 20세기에 다시 소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독실한 무슬림의 희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여기서 페르시아만의 아랍왕정국가들은 그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혁명이 내건 이슬람 국제주의때문에 혁명을 수출한다는 비난을 호메이니정권은 받게 되는 것이다.

독재 왕권의 붕괴와 이란혁명

호메이니의 이슬람공화국은…독실한 무슬림의 희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여기서 페르시아만의 아랍 왕정국가들은 그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 혁명이 내건 이슬람 국제주의 때문에 혁명을 수출한다는 비난을 호메이니 정권은 받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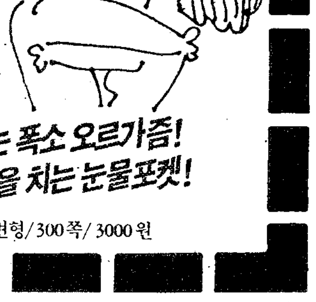
극심한 빈부격차 정치적으로 토로할 창구 없어
민족·국가주의 배격한 이슬람원리주의

외국어교육의선구자
PAGODA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B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인영어회화·S.L.E. (각반 12명 / 강사전원 학사·석사출신 미국인 / 10달완성)·미국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Active회화
ENGLISH영작, 문법·TIME·영어순해·TOEFL·종합영어 영어왕도·대학기본영어·영어실력기초·D.G.R 영어독해 VOCABULARY·AFKN청취· TOEFL L/C ·무역영어
S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日本語·표준일본어·NHK일어청취·일어통역가이드· 프랑스어·프랑스인회화·독어·독일인회화·중국어·중국인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신어학교수법 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철권발급 ·수료중 취득 과학적이고정밀분석된 PLACEMENT TEST를거친LEVEL배정.
274-4000, 274-8821, 8822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종로 2가파고다공원건너편휜빌딩
I CAN DO
파고다 외국어 학원

軍·행정병 모집
자격 Ⅱ 각군 17~26세 고졸이상(해군중졸이상)
특전 Ⅱ 수료후 자격증취득·각군전형을 거쳐입대 (복학조절가능) (교련혜택받음)
차트·도안
◀각과조보자환영 개인지도식으로 기초부터 지도함
◀수료후 취업희망자 각기관 취업알선
종로1가버스정류장 무과수 재과 2층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펜 글 씨
관인 인성 서예 차트 학원
732-5346
735-3771

大學英語
教養, 留學, 就職, 大學院試驗準備
開講➡3月3日
(선착순 마감)
李在玉 TOEFL
아카데미 TOEFL
時事 TOEFL
성문綜合英語,
Vocabulary 22,000
TOEFL LC,AFKN
英文解釋 ①②③, 英作文
就職 TOEFL, 美人会話 TIME
基礎英語会話 文法 및 讀解
한재덕 TOEFL 大學院英語
英語實力基礎, Side by Side
민병철生活英語, 美國生活英語
美國語 Hearing GRE,GMAT
英語順解 TOEIC
受驗日語(各種試驗對備)
初級日語 中級日語
高級日語, 基礎日語會話
ダイヅエスト, 日語高級會話
獨語文法完成 프랑스語
서반아語, 中國語
院 長: 文 昌 淳
종로2가 종로서적뒤편 734-2442 734-9226
時事英語学院
時事英語學院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유학상담은 (株)時事英語社
1 '85년 가을학기에도 유학을 지망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려 Harvard, Stanford, Berkeley등 30위내의 미국 명문대학에 70여명의 입학생들을 배출하였읍니다.
2 '86 가을학기 대비, 미국 100개 대학원 deadline 목록을 드립니다.
해외유학강좌
時事유학개발원은 교육보국의 꿈을 안고 유학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1985-86년도에도 해외유학 강좌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매회 배부되는 인쇄물을 모으면 훌륭한 "유학안내 책자"가 됩니다.
*정기 유학 강좌는 매월 2째, 4째 금요일 오후 5시에 (주)시사영어사 3층 "SISA English Plaza"에서 실시합니다.
파고다공원 정문 건너편
(주)시사영어사 부설
時事유학개발원
TEL: 274-2171~3

이규형 캠퍼스소설
청춘스캔들
입학기념 재산목록 제1호!!
오리엔테이션은 이 소설 한권으로 끝내준다!!
'스포츠서울' 인기연재중!
학점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철수와미미의 좌우명이다. 등록금은 공룡만큼 받아먹으면서 학점은 개미똥만큼 주는 대학을 사랑한다. 맨날 C학점과 F학점을 오락가락해도 A학점 바퀴벌레들이 부럽지 않은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청춘의 영원한 흔적, 대학을 쌈쌈하게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웃다가 웃다가 지치면 눈물도 난다. 화끈하게 죽여주는 연발 폭소탄 깜빡마이신!!

쉴새없이 터지는 폭소 오르가즘! 쌈쌈하게 가슴을 치는 눈물포켓!
오늘 719-2811 ●국판변형/300쪽/3000원